

전주시, 설맞이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이웃사랑 나눔행사·재난 안전사고 방지 등 종합상황실 운영

전주시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지난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민생안정을 위한 8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각 부서별 설맞이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설맞이 민생안전 8대 중점관리 분야는 △이웃사랑 나눔행사로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재난 안전사고 방지대책 △귀성·귀경객 특별 교통안전 대책 △비상진료 등 보건 및 환경 정비 대책 △설 명절 손님맞이 관광 대책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불편 생활민원 현장 점검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등이다.

먼저 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급 기관단체 및 독지가, 기업체, 시민 들을 대상으로 후원자 발굴 및 연계활동을 벌이고, 모금된 위문금품을 저소득층 28,601세대(54,459명)와 948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설맞이 유통질서 점검, 명절 성수품 등 18종에 대해 가격 모니터링 및 게시 등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이동판매와 전통시장 장보기, BUY전주·사회적기업·시니어클럽·장애인상품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 등 전통시장 및 지역 물품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 설을 앞둔 지역경제에 활기를 찾도록 민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등 45

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835개소와 공공개방화장실 248개소, 가스시설 82개소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등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전주시 교통대책상황실에서는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불법 주차 등 교통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로 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시보건소는 지역 내 공공보건요기관 4개소와 의료기관 985개소, 약국 348개소, 응급의료센터 6개소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연휴기간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속출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비해 감염병 집단발생 비상방역대책도 수립·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설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다중집합장소·주택밀집지역·주요 도로변·한옥마을 등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통문화시설 및 관광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시설별 다채로운 행사와 한옥마을 평일 야간 상설공연, 각종 전통놀이 프로그램, 문화장터 운영 등을 통해 귀성객들이 전주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총괄반과 청소대책반, 교통대책반, 재해대책반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양 구청 자체상황실과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대책반 상황실을 별도 편성하는 등 가로청소를 비롯한 6대 생활민원 관련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50대 '쇠고랑'

아내를 살해한 후 차량사고로 인한 화재로 위장시킨 남편이 경찰에게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최씨(55)에 대한 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아내 고씨(53)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운전석에 태워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워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타고 있던 그랜저XG 차량은 4일 6시 50분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 농수로에서 불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고씨가 정신을 잃었으며, 차량은 사고로 인한 자연발화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과 정에서 사고사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소견이 전달되며 사건은 반전의 국면을 맞았다.

국과수는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결과를 보내왔다.

경찰 역시 사건 당일 최씨의 행적과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TV를 통한 이동 상황 등을 토대로 살인사건으로 전환시켰다.

실제 경찰이 브리핑에서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유려한 피의자로 지목된 최씨의 수상한 흔적이 담겨있다.

최씨는 사건 발생일 오전 2시 33분에 자신의 그랜저XG 차량을 사건 현장 근처에 가져다 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찍혀있다. 이어 최씨는 아내 고씨와 함께 교회를 나갔으며, 오전 5시 53분 경 교회에 함께 나온 것이 포착됐다.

경찰은 최씨가 교회에서 나온 뒤 아내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현재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고, 사망 사실 역시 경찰의 통보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살해 방법과 범행 동기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고씨 앞으로 들어있는 2억 4,000만원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범행 동기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 등을 토대로 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군산=문정근 기자

덕진구 화전동, 노후상수관로 정비 나서

2월 초 공사 발주 거쳐 3월 부터 본격적인 공사 추진

전주시가 화전동 등 덕진구 병방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올해 총 3억원을 들여 덕진구 화전동 화전신정길의 낡고 오래된 상수관 1,430m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상수도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인근 화전동과 고랑동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지역 상수관은 지난 1982년 매

설돼 35년이 경과한 노후관으로 그간 인근주민들은 잦은 누수로 인해 수도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일부구간의 경우 사유지인 농경지에 매설돼 누수발생 시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에 시는 올해 화전동 화전신정길 1,430m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 시민들에게는 맑고 깨끗한 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를 통해 상수도 경영 합리화도 꾀하기로 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

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해 설계를 마쳤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2월 초 공사 발주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올해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이호병 전주시 급수과장은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과 단수·적수 발생 등 시민들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설 연휴기간 동안 무인민원 발급기 일제점검

전주시가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점검에 나섰다.

시는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민원서류발급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16일~19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2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총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현장을 방문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상태 및 유지보수 현황 △시스템 작동 및 관리상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체계구축 △소모품 관리상황 △청결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노후화된 발급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학생에 학원비·교재비 지원

전주시가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학생 241명에게 학원비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13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의욕 향상을 위해 학원비와 교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7년 열린교육 바꾸어 사업'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

주도 학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한편 작년에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90%이상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정부 3.0 협업 조력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대상자 모집에서

접수된 705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세대구성 등 공정한 평가를 실시, 초등학생 121명과 중학생 120명 등 241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생들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년간 매월 학원 수강료의 50%(초등학생 7만15천원, 중학생 8만1천원)와 매월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2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학원비 중 40%는 서비스제공기관인 학원에서 부담해, 학생들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완산서, 다중이용시설물 주차장 안전점검 실시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지구대장 이현성)는 지난 13일 관내의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물 주차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CCTV 작동여부, 사각지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여성불안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주차장 내 범죄 발생시 올바른 신고요령에 대하여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현성 서신지구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 및 백화점내에 있는 주차장의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안전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내 CCTV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